

한국증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에 변동성 확대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박수진 soojin.park.a@miraeasset.com

한국 증시 장중 리뷰:

장중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재부각에 변동성 확대

- 한국 증시 상승 후 하락 전환. 미국 증시에서 3월 FOMC에서 연준이 공격적인 통화정책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상승. 그러나 장중 우크라이나 군이 포 공격을 했다는 소식에 변동성 확대되며 코스닥 급락하기도. 우크라이나 선제 공격 뉴스에 대한 신빙성 논란과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간에 마찰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에 재차 반등. 투자심리의 민감도 및 변동성 확대 지속.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세 확대되며 지수 상승 유지
 - 해운업종 상승. HMM 호실적 및 해운운임지수 상승, 물류대란 수혜 기대감 반영. 리오프닝 관련 화장품, 여행 관련주 강세 지속
- 달러/원 환율은 상승. 우크라이나 군 포격 소식에 따라 원화 약세폭이 커졌지만 지수 반등과 외국인 매수유입 확대에 환율 안정권 흐름

아시아 시장 장중 리뷰:

중국 증시, 대외변수에도 변동성 제한. 2차전지 관련주 급등

- 중국 주요 지수 상승. 오전장 상승세 유지 후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오후장 상승폭 일부 반납. 2차전지, 클린에너지 업종 강세. 특히, 최근 리튬,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에 따라 비철금속 업종 강세. 외국인은 4거래일만에 매수 전환
 - 2차전지 관련주 강세. 리튬가격이 톤당 40만위안을 돌파하면서 천제리튬(002466.SZ), 강봉리튬(002460.SZ) 강세. 또한 테슬라가 호주에서 리튬 구매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업종 전반 강세. 천사첨단신소재(002709.SZ)는 LG화학과 테슬라가 여전히 고객사이며, 대부분 중국 내에서 생산설비 구축과 원재료 확보를 하고있다고 밝히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적은편이라고 밝히며 강세
- 홍콩 주요 지수 하락.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재차 부각되면서 하락 전환. 중국 본토 증시 대비 대외변수 더욱 민감하게 작용. 비철금속, 클린에너지 업종 강세.
 - 야오밍바이오(02269.HK): 최근 미국 수출입 미검증리스트 편입 후 주가 하락국면에서 동사의 3대주주인 The Capital Group이 553만주 가량 (주당 평균 56.077HKD에 매수)을 추가 매수해 지분을 늘렸다는 소식 (6.92% → 7.05%)이 전해지며 상승

미 증시 전망:

힘겨운 줄다리기

- 의지를 확인한 1월 FOMC 의사록
 - 전일 공개된 1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현재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정책적 조정을 없애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혀
 - 이는 연준의 예상만큼 인플레이션 속도가 잡히지 않는다면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걸로 해석 가능. 연준이 취할 수 있는 공격적인 행보는 1) 금리인상 속도 up, 2) 적극적인 대차대조표 축소 등이 대표적. 그러나 이 날 공개된 의사록에서는 가파른 금리인상에 대한 보수적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대차대조표 축소 시기 역시 시장 예상보다 늦은 연말쯤으로 공개되며 초반 약세를 보였던 미 증시는 반등
 -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힌트는 내달 초 예정되어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다만 지난 15일(현지시각) 5명의 연준 이사진에 대한 상원 인준 표결을 하려고 하였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 공화당은 은행감독위원장으로 지명된 사라 블룸 라스킨 부의장의 과거 경력 및 그녀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에 대해 문제 삼고있는 상황

• 1월 소매판매 덕에 높아진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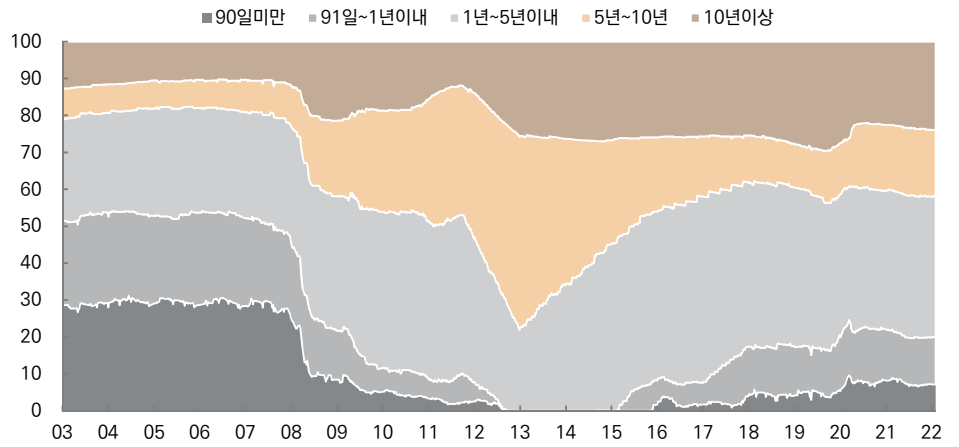
- 미 상무부는 상점, 온라인 및 레스토랑에서의 지출을 측정하는 1월 소매판매가 전월대비 3.8%나 증가했다고 발표. 2021년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월별 증가세를 보여. 긍정적인 소매판매 결과 덕분에 애틀란타 연은이 집계하는 1분기 경제성장률 예상치인 GDPNow는 1.5%대까지 올라

- 다만 소매판매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격(P)과 양(Q) 등 항목별 기여도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이 어려운 부분 있어. 하지만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의 경우 최근 몇 달 동안 더 높은 가격이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전망. 결국 인플레이션이 소비자의 지출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추정

- 기업들의 공급 부족과 관련해서는 이번 분기에 점차적으로 완화 기대. 12월 기업재고는 전월보다 2.1% 증가해 1992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 이는 코로나와 관련된 일부 공급 차질이 완화되면서 소매업체의 재고 주문(restocking)이 증가했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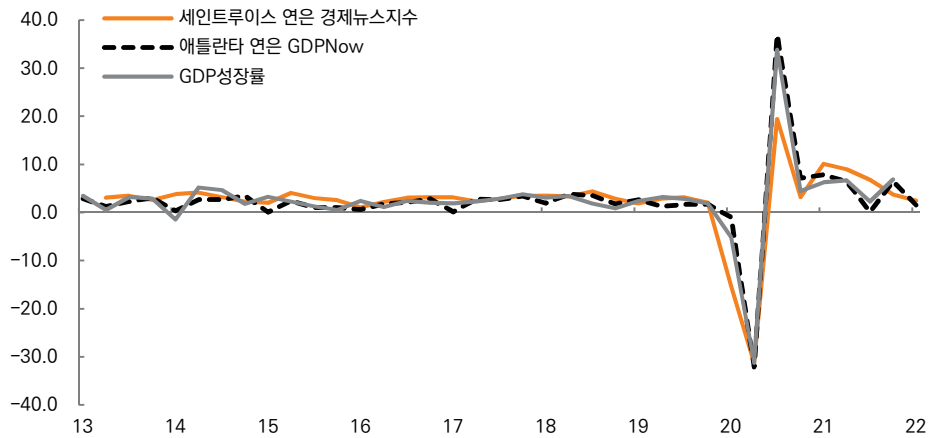
- 이번 소매판매 자료에는 레스토랑 이외의 서비스 지출은 포함되지 않은 만큼 다음 주 금요일(25일) 발표 예정인 개인소비지출 데이터에 주목할 필요 있어

그림 1. 연준 보유 국채 만기별 비중 (%)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그림 2. 미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



자료: FRED,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